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사례에 관한 연구

최 성 호* · 장 경 원**

【요약문】 이 연구는 청소년을 위한 능동적 경제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토론 방법을 적용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다양한 토론 유형 중에서 고교 또는 대학의 수업에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칼 포퍼형 토론방법을 채택하였고,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협동형 토의·토론모형도 함께 활용하였다. 고등학생 대상의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협동형 토의·토론, 약식의 칼 포퍼형 토론 등 모듈을 조합한 구성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실행 후 참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경제토론 교육은 평소 ‘경제’ 교과목이나 ‘토론’에 대한 특별한 흥미나 지식이 없던 평범한 학생들에게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와 경제지식 습득의 인식을 가지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적 평가 의견도 활발하게 개진하였다. 이들은 토론의 경험과 교육성과, 교육의 운영방식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강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해서도 교육시간이나 분량 및 난이도의 조정, 오리엔테이션의 보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운영방식 개선 등 타당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통해 토론 방법이 경제교육에 유용하고 교육성과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경제교육, 토론과 토의, 경제토론, 토론프로그램

* 제1저자,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경제학(finechoi@kyonggi.ac.kr).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교직학부 교수, 교육공학(kyungwon@kyonggi.ac.kr).

I. 서론

최근 지식·정보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화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여건 변화에 대한 국민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경제교육 발전방향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능력’,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평생 경제교육’, 언제 어디서나 실행 가능한 ‘유비쿼터스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 특히 OECD는 조기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도 일상생활에서 합리적 소비 등 경제적 결정을 해야 하고, 평균수명 연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경제지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만 15세 청소년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던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은 2012년부터 금융 문해능력(financial literacy)을 추가하였다. 2020년에는 13개 OECD 회원국과 7개 협력국 등 20개 국가의 117천 명을 대상으로 금융 문해능력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OECD, 2020). 이 보고에 의하면 국가 별로 평균 85%의 청소년이 2단계의 금융 문해능력을 보유하여 수입, 지출, 예산, 기초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관련 용어를 구사하는데, 3개국의 경우 청소년의 3분의 1이 2단계에 이르지 못해 국가 간 격차가 크다. 한국은 금융 문해능력 부문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고 국민경제의 체계와 작동 및 경제정책의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최성호·장경원, 2017a), 일반적으로 소양 경제교육과 개인금융 경제교육의 내용을 포함한다. 관계 법규에 의하면 경제교육을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경제교육지원법 제2조 1.호). 경제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최근에는 주로 금융활동에 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한진수(2019)는 스스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금융 소비자가 많으므로 금융 이해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금융교육보다 특정 금융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특화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영선(2016)은 청소년의 금융태도와 금융행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경제적 문해능력(economic literacy)의 조기 함양을 위한 청소년 대상의 경제교육을 강조하였다.

한편 경제교육의 방법에 관해서도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법 채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교육이 주로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alek *et al.*, 2014). 각급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등 새로운 교육방법이 도입되고 있는데 경제교육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몇몇 경제학자들은 대안적 교육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다(Asarta *et al.*, 2017). 경제교육에 관해 소개된 대안적 교육방법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여 그래픽, 수학적 표현방식을 종합·활용하는 경제교육(Weisman, 2012), 사례연구(Asarta *et al.*, 2017), 그리고 프로젝트학습(신현범·김효정, 2011; Larmer *et al.*, 2015) 등이다. 이러한 방법은 모두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 것인데, 경제의 현상, 역사와 전망, 그리고 제도와 정책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중요한 경제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 토론이 의미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인간사회의 형성과 함께 시작된 토론은 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쟁점에 대한 사회화 과정이기 때문이다(이두원, 2008). 토론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토론이 필요하거나 토론하기에 용이한 경제 관련 논제로서 도덕성과 책임, 평등, 복지와 안전, 재산(Oliver and Newmann, 1970), 시장, 정부통제, 불평등한 자원분배, 빈곤(Woolever and Scott, 1988), 경제적 불평등, 소비와 환경(구정화, 2009)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 특히 성인이 되기 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토론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가 개발한 사례의 내용은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경제적 소양은 민주시민의 기본 역량이며, 금융문해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물론 금융과 자산관리의 의사결정 문제에도 여기서 제시한 토론사례의 틀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성공적인 토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제준비, 토론방법 결정, 토론 수업 안내자료 개발 등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박삼열,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경제토론 교육을 위한 토론방법과 토론논제를 선정하고 토론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워크시트, 자료 등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외 경제교육의 동향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 economics education)은 경제학의 정의만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경제교육을 경제학의 교육에 관한 학문(scholarship of teaching economics)으로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방법의 평가, 교육자가 흥미를 가지는 정보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Becker, 2001).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제학의 교육을 의미하며,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과 이론, 사유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학습자들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물론 대학에서의 경제학 전공 학생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각급 학교 학생이나 모든 성인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까지 포괄하기도 한다(Buckles, 1987). Stigler(1970)는 모든 사람이 모든 학문을 전부 공부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이유로 경제적 문해능력(economic literacy)을 함양하는 경제학이 어느 누구나 약간이라도 공부해야 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의 수단으로서 경제학의 어휘와 논리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 자주 필요하지만 쉽게 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유형의 지식이라는 사실이다.

경제교육은 대체로 3가지 부문의 교육을 포함한다. 경제학 전공자에 대한 교육, 금융교육 또는 금융소비자교육과 같이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필요한 지식의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으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와 참여를 위한 경제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대학 이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과목의 교육이나,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여러 생애주기 단계에 걸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초점으로 한다. Stigler(1970)가 강조한 경제적 문해능력의 함양도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범주의 경제교육에 해당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교육은 국가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고 학계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9). 경제교육의 내용은 실용성을 중시하여 개인금융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경제학회가 내부 조직으로 창설한 경제교육협의회(Committee of Economic Education; CEE)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육정책을 각 주정부가 소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국 범위의

경제교육은 연방정부가 전국 240여 개 지역 센터를 보유한 CEE와의 협조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신용·부채 관리, 금융기관 활용 등 방법을 교육하는 등으로 강화하고 있다. 영국 교육부도 11세와 16세 사이의 학생들에 대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전국 시민교육 과정(national curriculum for citizenship)에 의한 금융 문해능력(financial literacy) 함양을 의무화하였다(Financial Times, 2019). 싱가포르는 교육부와 통화감독청의 협조로 설립된 금융교육운영위원회(FESC)가 금융 교육을 주관하며 2003년 전국민 금융교육의 목적으로 첫 시행된 ‘머니센스(MoneySENSE)’ 과정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싱가포르 교육부의 2014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여러 학문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수학, 영어, 사회 등 과목에 금융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인성·시민성 과목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관련 단원이 시간·자금 관리 방법을 다룬다. 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15세 청소년들의 경제적 소양과 관련하여 금융문해능력만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OECD, 2020).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지만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실행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교육협의회 같은 명확한 구심점이 없다. 2008년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설립되었으나 운영의 문제로 2015년에 해산되었고, 2017년 설립된 한국경제교육단체협의회도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다. 금융감독원이 교재개발·제공, 강사파견 등으로 각급 학교의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부와 연계한 제도화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일관성 있는 경제교육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OECD의 PISA 금융소양 평가의 평가 체계와 문항이 2009/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높고 평가참여를 통해 금융교육 개선을 위한 국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성경희·박은아, 2017), 아직 한국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2. 토론교육의 특성 및 효과

능동적 학습의 한 유형인 토론(debate)은 토의(discussion)와 구별된다. 토의는 가장 단순하게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로 정의되며, 강력하고 계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해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다른 이의 신념을 경청할 때 창출된다는 믿음에 근거를 가진다(Hess, 2009). 나아가 ‘3인 이상 참여자 간의 정

보의 자유로운 교환(Christoph and Nystrand, 2001)’이라든가, ‘바람직한 성과가 다양한 견해의 표현과 검토에 의존하는 공동 탐구의 하나(Parker, 2003)’라는 등의 여러 정의도 있다. 일반적으로 토의는 전통적인 강의 방법에 비해 자료의 숙지(retention of material)와 학생들의 추가 학습의 자극, 사유능력 개발 등에 우월한 것으로 오래 전에 보고되었으며 반복되어 확인되고 있다(McKeachie, 1972; Bonwell and Eison, 1991; Prince, 2004).

이에 대하여 토론은 의견대립과 경쟁의 측면이 강조되어 ‘청중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준을 사용하여 더 나은 토론을 할 책임이 있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청중들 앞에서 상호 합의된 규칙에 따라 정책 또는 판단의 명제에 대해 논쟁하는 경쟁적인 말하기 활동’이다(Bartanen and Frank, 1994). 토론은 웅변형 모델(oratory model)로 상충하는 주장 사이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Manin, 2005). Manin(2005)은 집단적 숙의의 효과가 대립되는 주장들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숙의(democratic deliberation)의 수단으로서 대화형 모델(conversation model)인 토의보다는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의 규명, 가치의 판단, 문제해법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와 구별하여 토론은 어떤 주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서서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증거와 논리에 의해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상대측 의견을 반박하는 활동이다. 토론에 참여한 개인이나 팀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고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경쟁하며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견지하는 것이 원칙이다(Anderson, 2016). 토론 방법에 의한 교육은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강화하며 이해와 추론, 정보의 획득과 활용,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하재홍, 2010; Chikeleze *et al.*, 2018; Lynch, 1996; Bligh, 2000).

토론은 참여자와 절차 등을 기준으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제토론교육협회(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IDEA)는 팀토론을 칼포퍼형, 의회형, 영국 의회형, 입법형, 링컨·더글러스형, 중학교형, 모의재판형, 교차조사형, 공개포럼형, 대중참여형 등으로 구분하였다(IDEA, 2020). Cirlin(2007)은 각 토론 유형의 연혁에 따라 의회형, 전국 토론토너먼트형, 링컨·더글러스형, 세계대회형, 3-4인 참여형, 공개토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고등학교나 대학 수업에서는 주로 의회형, 링컨·더글러스형, 교차조사형, 칼포퍼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Anderson, 2016; Cirlin, 2007).

우선 의회형(Parliamentary debate)은 영국 의회의 토론을 모델로 정립된 것으로 각 팀은 2인으로 구성되는데 찬성팀의 수상과 정부 측 구성원, 그리고 반대팀의 야당 당수와 야당 구성원의 역할을 한다. 이 유형은 준비시간이 엄격히 한정된다는 점과 상대방의 입론 중에 ‘의회적 사항’(parliamentary points)에 대한 보충질의가 허용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논제가 미리 주어지지 않고 당일에 비교적 포괄적 문장으로 공개되면 짧은 준비시간 내에 찬성 측은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을 하고 반대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전개해야 한다.

링컨·더글러스형(Lincoln-Douglas debate)은 미국의 링컨과 더글러스가 펼친 1850년대 상원의원 선거에서의 토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 방식은 어떠한 지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논쟁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가치논쟁에의 집중에 적합한 1:1 토론이 특징이다. 서로 경합하는 가치 간의 선택 기준으로 의무론적 기준과 비용편익 분석 기준이 제안된다. 전자의 입장은 자유, 정의, 생명 존엄과 같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행위가 가져오는 효과가 큰 행위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dward, 2008; Perelman, 1982).

교차조사형(CEDA debate;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debate)은 교육 목적의 정책토론을 위하여 정립된 것으로 정책 토론의 취지에 적합하게 현 상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구별하며, 한 쪽 입장의 입론 후에 상대 입장의 교차조사를 허용한다. 의회형 토론과 같이 찬성과 반대 입장의 팀은 각 2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입론, 상대방 입론에 대한 교차 조사, 그리고 반론의 3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회형 토론의 2배에 달하는 12라운드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토론은 반대 측과 찬성 측의 반박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때 입론과 교차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주장이 처음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입론과 교차조사의 치열한 과정에서 부각된 양 측 주장의 강점과 약점들을 재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하는 단계이다(이두원, 2008).

칼 포퍼형(Karl Popper debate)은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입론과 반론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팀별 3명의 팀원들이 입론과 반론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이 방식의 특징은 찬성 측 입론이 단 한 번 만 이루어지고 반론 측 입론에 대해서도 교차조사가 이루어지며, 찬성측이 최종 발언을 하는 다른 토론 방법과 달리 반대 측이 반박의 최종 발언을 한다는 점이다. 다른 방식에서는 대체로 현실을 변화시켜 개선하자는

찬성 측의 입장이 지는 훨씬 큰 논증의 부담을 토론 절차로 덜어주기 위해 찬성 측에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케빈 리, 2012), 칼 포퍼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공평하지 않으며 긍정 측의 입장이 옳지 않다는 것만이 아니라 부정 측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정 측의 현상 유지의 입증 책임도 무겁다는 점에서 반대 측이 최종발언을 하도록 한다고 한다(이상철 외, 2006). 토론 유형별 토론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토론 유형별 토론 절차

의회형	링컨-더글라스형	교차조사형	칼포퍼형
찬성 측 첫 번째 입론	긍정 입론	긍정측 1번 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 A의 입론
반대 측 첫 번째 입론	부정 교차조사	부정측 2번 토론자의 교차조사	반대 측 C의 질문
찬성 측 두 번째 입론	부정 입론	부정측 1번 토론자의 입론	반대 측 A의 입론
반대 측 두 번째 입론	긍정 교차조사	긍정측 1번 토론자의 교차조사	찬성 측 C의 질문
반대 측 반박	긍정 반박	긍정측 2번 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 B의 반박
찬성 측 반박	부정 반박	부정측 1번 토론자의 교차조사	반대 측 A의 질문
보충적 질의: 입론 시작 후 1분, 종료 전 1분, 반박시간 제외	긍정 반박	부정측 2번 토론자의 입론 긍정측 2번 토론자의 교차조사 부정측 1번 토론자의 반박 긍정측 1번 토론자의 반박 부정측 2번 토론자의 반박 긍정측 2번 토론자의 반박 긍정측, 부정측 팀당 5분	반대 측 B의 반박 찬성 측 A의 질문 찬성 측 C의 반박 반대 측 C의 반박 숙의 시간(팀당 5분)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적 토론 유형 이외에 비경쟁적 토론유형도 활용되고 있는데, 협동형 찬반 토의·토론(Pro-con cooperative debate)이 대표적이다(장경원 · 이병량, 2018). 협동형 찬반 토의·토론에서는 어떤 논제에 대해 토론할 4명으로 하나의 팀을 만들고, 그 안에 다시 2명씩 부분팀을 구성한다. 부분팀 중 한 팀은 찬성 의견을, 다른 부분팀은 반대 의견을,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한 후,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상대 부분팀의 주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제 한 팀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했으므로 협동적인 토의를 통해 찬성 주장의 장·단점, 반대 주장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팀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한다(정문성, 2017).

3. 교육혁신, 경제교육과 토론수업

일반적으로 교육혁신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교실과 학교의 운영, 교사들의 교육방법 개발과 활용 등 변화와, 이들 변화의 교육성과로의 연계를 포함한 교육체계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Vincent-Lancrin *et al.*, 2019).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OECD(2018)는 2030년에 필요할 미래 역량을 규명하고 이러한 미래 역량을 함양할 교육방법을 탐색하는 OECD교육혁신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꼽고 교육에서의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였다. European Commission[EC](2020) 역시 급속한 기술, 문화, 경제, 인구구조 등 변화를 겪고 있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함을 교육혁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C는 교육혁신을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적용과 디지털교육, 산학협력, 기업가정신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제교육에 대한 토론 방법의 적용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이론 중심의 경제학 교육이 다른 학문에 비하여 강의에 더욱 편중되어 있으며 (Malek *et al.*, 2014), 특히 경제학 원론의 경우 강의가 지배적 수업방법이라고 한다 (Watts and Schaur, 2011; Watts and Becker, 2008). 우선 일반적 교육혁신의 차원에서 학생 행위주체성 초점의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의 일환으로서 토론이 필요하다 (Harmon and Lambrinos, 2012). 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주차 또는 시간 동안에 토론수업을 포함하거나 토론을 위주로 진행하는 수업은 더욱 진전된 형태의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인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팀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또는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현남숙, 2014; 김준태, 2014; 남정민, 2017; 이광호, 2019; 구정호·양지연, 2017; Roach, 2014). 예컨대 문제기반학습에서 일단 문제가 정의되면, 강의와 함께 토론 등의 다른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이 활용될 수 있다(Woods *et al.*, 2000). 둘째, 경제현상의 불확실성과 미래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적 사실의 현황·전망에 관한 분석과 판단에 토론의 여지가 많다. 기업과 단체의 저축과 부채·자산관리 등 집단적 의사결정에는 토론이 수반된다. 개인의 의사결정도 위험 부담이 수반되므로 최종적 결정은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전문가 등 타인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 이슈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의 형성에 가치 판단이 개재되므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의견 형성의 과정에서 토론이 긴요

하다. 실제 세계의 사례에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사유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판단하는 경제교육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토론 방법은 다른 어떤 과목의 교육보다도 중요하다. 넷째, 토론 방법에 의한 경제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경쟁과 협업 등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토론에 의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교육에 대해 토의·토론수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Hansen(1983)은 경제학 수업에 토론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토론수업과 같이 강좌 목표의 선정, 읽기 자료의 선택, 토론을 유도하는 질문의 준비, 토론절차의 계획, 리더 역할의 수행과 평가 등 5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특히 준비할 질문에 관하여 사실, 해석, 평가에 관한 탐색적 질문(exploratory questions)과 기본, 지지, 추가에 관한 촉진적 질문(facilitative questions) 범주의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해석’에 관한 ‘기본’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 문항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교육에서 토론수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미시경제학 강좌에 수업시간 30%를 플립러닝에 투입한 Roach(2014)처럼 토론과 함께 부분적으로 플립러닝, 문제기반 학습, 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의 능동적 학습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 과목에서 능동적 학습, 흥미유발, 비판적 사고 개발에 의하여 능동적이고 협력적 학습의 소재가 되었다는 카툰이나(Wyk, 2011), 심슨시리즈(“The Simpsons”) 같은 TV드라마나 영화를(Lucasen and Thomas, 2010) 토론수업의 자료로 사용하거나, 대규모 강좌에서 사례토론을 위해 활용된 트위터를(Jones and Baltzersen, 2017) 토론수업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Lucasen and Thomas(2010)은 심슨시리즈를 토론수업의 자료로 활용하여 경제적 추론, 기회비용, 인센티브, 비교우위, 한계편익 체감, 탄력성, 외부성, 무임승차, 게임이론 등에 관련된 토론 주제를 제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경쟁식 토론에 관해 Provencher and Ramnarain(2019)은 중급 미시경제학 강좌에서 팀토론의 수행에 의하여, 주로 경제학과 경제정책의 윤리, 정치경제, 경제정의 측면의 주제에 관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수업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미시경제학의 주요 개념 각각에 관하여 도출한 경쟁토론 주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비용편익분석, 기회비용,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소비자선택이론 등 주제에 관하여 “대학교육이 좋은 투자인가”와 같은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각 팀의 입론, 반론, 재반론, 청중 질의응답, 입장 요약 등 5개 라운드로

토론을 진행하고 각 라운드 별로 각 팀에게 2분 내지 4분의 시간을 부여하며 1, 2, 4 라운드 후에 3회의 작업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여러 토론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는 칼 포퍼형 토론 방법을 채택하였다. 칼 포퍼형 토론방법은 시사적인 이슈의 토론을 통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IDEA회원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Trapp *et al.*, 2005). 칼 포퍼형 토론은 공공영역 이슈에 관한 교육목적의 토론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토론의 4가지 주요 요소에 관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1-3명의 평가자를 포함해 공동체에서 가장 지적인 청중(*audience*)을 전제로 하고, 명확하고도 견고한 증거(*evidence*)를 요구하는데 토론자와 청중에게 알려진 것 뿐 아니라 연구·조사를 통한 추가 증거를 포함함으로써 토론자만이 아니라 청중의 학습에도 유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엄밀한 추론(*reasoning*)을 전개하도록 하며, 특별한 기술적 용어가 아니라 일반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구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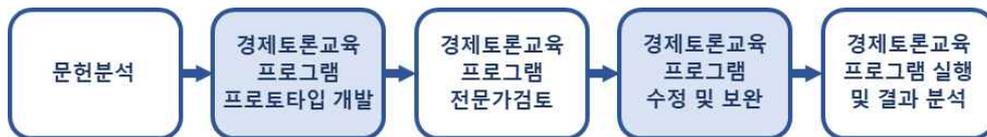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이 연구는 칼 포퍼형이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업에 적합하므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제도나 정책의 유지나 변경에 관한 결정 외에도 경제 현상이나 전망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그에 입각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경제 분야의 토론은 두 팀이 대등한 입장에서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또한 경제적 판단과 결정은 급변하는 경제 현상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증거 기반의 엄밀한 추론을 요구하고, 양 측의 주장 모두에 교차조사를 통한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도록 하며, 토론자만이 아니라 청중의 학습에도 유익하다는 특징들도 긍정적이다. 토론은 가장 지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하되 보편적 언어를 구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을 포함하는 경제교육의 취지에 적합하다. 이 연구는 칼 포퍼형 방법에 더하여 토론의 경험이나 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활동 또는 보완적 토론 방법으로 협동형 토의·토론 방법을 추가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는 경제교육에 토론 방법을 적용한 사례로서 고등학생 대상의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경제과목 교과서의 주요 내용,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토론모형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문헌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검토를 수행하였다. 넷째, 전문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프로토타입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다섯째, 완성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후 결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절차



2. 연구참여자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KDI 지식협력단지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림 2>에 제시된 5개의 수준 중 두 번째 수준인 「모듈A(오리엔테이션)+모듈B(비경쟁토론)+모듈C(경쟁토론)」로 구성하였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고등학교들 중에서 학교 단위로 참여를 신청한 5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표 2> 참조). 5개 학교 중 A, C, D, E는 남녀공학이고, B는 여고이다. 참여자는 총 99명으로 <표 2>에 요약한 바와 같이 5개 학교 학생들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0명(20.2%), 2학년 71명(71.7%), 3학년 10명(10.1%)으로 2학년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2>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분포

학교	학년			N	%
	1	2	3		
A고등학교	2 (2.0%)	13 (13.1%)	10 (10.1%)	25	25.3
B고등학교	4 (4.0%)	15 (15.2%)	0 (0%)	19	19.2
C고등학교	7 (7.1%)	12 (12.1%)	0 (0%)	19	19.2
D고등학교	4 (4.0%)	21 (21.2%)	0 (0%)	25	25.3
E고등학교	3 (3.0%)	8 (8.1%)	0 (0%)	11	11.1
합계	20(20.2%)	69(70.0%)	10(10.1%)	99	100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평소 경제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정도는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평균 3.63이고, 토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정도는 평균 3.82로 보통 수준이었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모두에 특별한 관심과 흥미가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표 3>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성

학교	전혀 없다	없다	보통 이다	많다	매우 많다	M	SD
평소 '경제'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정도	4 (4.0%)	3 (3.0%)	35 (35.4%)	41 (41.4%)	16 (16.2%)	3.63	0.93
평소 '토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정도	2 (2.0%)	5 (5.1%)	29 (29.3%)	36 (36.4%)	27 (27.3%)	3.82	0.96

3. 자료수집 및 분석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은 2018년 2월 13일부터 3월 20일 사이의 기간에 학교별로

이루어졌다. KDI 지식협력단지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참여자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견을 수집하였다. 평가도구는 <표 4>와 같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과 경제지식 습득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 프로그램의 강점과 개선점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 소속 학년, 평소 경제와 토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정도를 묻는 개인정보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4>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도구

구분	문항			
경제토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에 만족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나는 이 프로그램의 ‘방법’에 만족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지식을 습득하였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이 수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강점	①	②	③
	개선점	①	②	③
개인정보	5. 학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6. 평소 ‘경제’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정도 ①전혀 없다 ②없다 ③보통이다 ④많다 ⑤매우 많다			
	7. 평소 ‘토론’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정도 ①전혀 없다 ②없다 ③보통이다 ④많다 ⑤매우 많다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99명의 학생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 중 개인정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강점과 개선점을 제시한 형성적 평가 의견은 질적 연구도구인 Nvivo 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10명이 작성한 의견지를 선택한 후 학생들이 작성

한 강점과 개선점 내용 중에서 1차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둘째, 전체 평가지의 평가 의견 중에서 1차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코딩하였다. 이 때 1차 키워드와 무관한 새로운 내용에 관해서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코딩하였다. 셋째, 연구자 2인은 이러한 내용분류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자의 분석 결과를 교차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검토 결과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거쳐 키워드를 수정하고 분류된 내용을 재배치하였다. 다섯째, 최종 조정된 분류 내용을 빈도표로 구성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은 토론에 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없이 참여하여도 토론 활동을 통해 경제지식 습득과 토론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표 5>와 같이 토론활동 방법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4개의 모듈로 구성하였다. 모듈 A는 프로그램의 도입 단계에서 활용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아이스브레이크 활동, 프로그램 안내, 토론 특성 및 토론 과정 안내를 포함한다. 모듈 B는 비경쟁토론으로 ‘협동형 찬반 토의·토론’ 방법에 의해 운영되며, 학습자들에게 읽기자료를 제공한다. 모듈 C는 경쟁토론으로 칼 포퍼형 토론 방법으로 운영되며, 읽기자료를 제공한다. 모듈 D는 경쟁토론으로 칼 포퍼형 토론 방법으로 운영되며, 읽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듈 D에서는 학습자들이 토론의 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료를 탐색, 분석, 적용해야 한다. 이 때 자료 수집을 위해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기관의 도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모듈 C와 D는 모두 경쟁토론이지만 자료제공 여부에 따라 학습자의 역할, 난이도, 소요시간에 차이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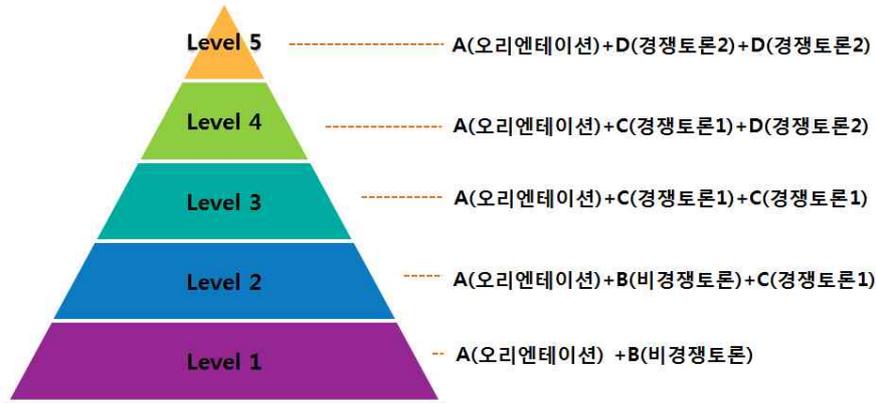
<표 5>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모듈

모 듈	모듈명	주요내용	시간 (분)	참여 가능인원	비고
A	오리엔 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크 • 프로그램 안내 토론의 특성(정의, 절차, 효과) 토론의 과정 	30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과정 동영상 활용
B	경제 토론 1: 협동형 찬반 토의·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인 1팀으로 구성 / 논제 제시 • 팀 내 부분팀(찬성, 반대) 구성 • 부분 팀에서 토론개요서 작성 • 부분 팀 간 찬반토론 • 토론 내용을 토대로 팀 의견 결정 • 팀별 의견 발표 및 공유 	90	20~32명 (1팀 4인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형 찬반 토의·토론 • 읽기자료제공 • 토론개요서 양식 제공
C	경제 토론 2: (약식) 칼 포퍼형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 1팀으로 구성 • 논제 제시 • 대진표 및 입장 결정(제비뽑기) • 팀별 토론개요서 작성 • 찬반토론(1회) • 찬반토론(2회) • 찬반토론(3회) • 정리 및 성찰 	180	18명 (1팀 3인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 포퍼형 토론(약식) • 읽기자료 제공 • 추가 자료 조사 및 활용 가능
D	경제 토론 3: (정식) 칼 포퍼형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 1팀으로 구성 • 논제 제시 • 대진표 및 입장 결정(제비뽑기) • 팀별 자료수집 및 토론개요서 작성 • 찬반토론(1회) • 찬반토론(2회) • 찬반토론(3회) • 정리 및 성찰 	240	18명 (1팀 3인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 포퍼형 토론(정식) • 읽기자료 미제공 • 아이패드 제공 • 자료수집 (박물관/도서관이용)

* 모듈 C, D에서 우승팀을 선정할 경우 분반 운영이나 프로그램 시간 조정 필요

4개의 모듈은 각 모듈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모듈을 조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4개의 논제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4개의 모듈을 조합하여 5개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모듈 조합에 따라 이외에도 다양한 수준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수준별 모듈 조합 예시



첫 번째 프로그램(Level 1)은 가장 쉬운 프로그램으로 오리엔테이션과 비경쟁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4인 1팀이 되어 제공된 자료를 읽고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토론하고 토론 내용에 대해 토의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Level 2)은 오리엔테이션과 비경쟁토론, 자료를 제공하는 경쟁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먼저 4인 1팀으로 제공된 자료를 읽고 논제에 대해 토론과 토의 활동을 경험한 후 3인 1팀으로 경쟁토론을 경험한다. 세 번째 프로그램(Level 3)은 오리엔테이션과 두 번의 경쟁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두 번의 경쟁토론을 경험한다. 네 번째 프로그램(Level 4)은 오리엔테이션과 두 번의 경쟁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첫 번째 경쟁토론은 제공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경쟁토론은 학습자들 스스로 박물관, 도서관,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탐색, 수집, 분석한 후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Level 5)은 오리엔테이션과 두 번의 경쟁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번의 토론 모두 학습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스스로 수집, 분석하여 활용한다.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논제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과 프로그램 개발 당시의 주요 경제 이슈를 토대로 경제학 전공 교수, KDI 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 6>과 같이 4개의 논제를 선정하고, 이 논제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읽기자료를 논문, 신문기사, 전문서적에서 추출하여 3-5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료

는 해당 논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구성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6>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논제와 읽기자료 예시

논제	읽기자료 예시
논제1.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	오상봉(2017).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리뷰, 25-31. 외 4편
논제2.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전자신문(2017). 4차 산업혁명, 어느 나라든 정부 역할에 '무게', 2017.9.21., URL : http://www.etnews.com/20170912000386 외 4편
논제3. 수도권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중부일보(2017). 한국이 수도권 규제할 때, 세계는 대도시권 묶어 경쟁력 키워, 2017.7.10. 외 4편
논제4. 서비스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KOTRA(2017). 한미 서비스 교역 현황 및 경쟁력 분석에 따른 시사점,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8.22. 외 4편

* 읽기자료로 제공된 전체 자료는 최성호, 장경원(2017b), 한국경제관련 토론형 PBL 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가이드북에서 볼 수 있음

2) 프로그램의 제공 자료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은 토론경험이 없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가이드라인과 학생용 워크북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용 가이드라인과 학생용 워크북은 모두 <표 7>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art 1. 토론 이해하기'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학생용 워크북은 'Part 2. 토론 모듈'과 'Part3. 논제 및 읽기자료'에 학생들이 작성해야 할 워크시트와 읽기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교사용 가이드라인은 'Part 2. 토론 모듈'과 'Part 3. 논제 및 읽기자료'에 모듈의 진행 과정과 전략, 논제 및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 목록, 논제와 관련된 기초 개념, 토론개요서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표 7>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과 워크북 목차

구분		주요 내용
Part 1. 토론(debate) 이해하기	I. 토론의 개념 및 주요 특성	1. 토론의 개념 2. 토론 준비와 진행 과정 3. 토론 수업의 목적과 효과
	II. 토론 유형	1. 경쟁토론 방법 2. 비경쟁토론 방법
	III. 토론하기	1. 토론개요서 작성하기 2. 입론개요서, 큐카드, 근거카드 작성하기 3. 토론내용 메모하기 4. 토론 진행하기
	IV. 토론활동 평가하기	1. 3:3 토론평가표 2. 2:2 토론평가표 3. 토론평가표(청중용) 4. 성찰저널 양식
Part 2. 토론 모듈	I. 토론 프로그램 모듈 개요	
	II. 모듈별 주요 내용과 구성	1. 모듈 A. 오리엔테이션 2. 모듈 B. 비경쟁토론 3. 모듈 C. 경쟁토론1 4. 모듈 D. 경쟁토론2
Part 3. 논제 및 읽기자료	논제1.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 논제2.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논제3. 수도권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논제4. 서비스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그림 3> 입론 큐카드(반대측) 예시자료

No. 1

서론	1. 불평등 악화의 핵심 요인: 임금격차 2. 최저임금 인상 목표(2020년 1만 원, 연평균 15.6%) → 인상 속도 적정성 논란 3. 정부의 가격규제 = 필요최소한이 바람직
본론	1. 과도한 인상은 고용 위축 초래 1) 최저임금 인상: 미숙련 노동 수요 감소 - '시장은 자원배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다' 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축소 현실화 - 소상공인의 92%, 외식업체의 76% 2. 빈곤퇴치와 분배개선을 위한 비효율적 정책수단

<표 8> 토론개요서 예시(교사용 가이드라인 수록 자료)

구분	내용
찬성측	<p>①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비교(국회예산정책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7,530원 기준으로 OECD회원국 27개 국가 중 14위의 중간 수준임 - 프랑스(1만2970원), 독일(1만1740원), 영국(1만860원), 미국(8190원)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스페인(6850원), 멕시코(5120원), 포르투갈(4620원), 칠레(3050원)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의 강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현실화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강화해야 함 ○ 아울러 저소득층 소득증대는 최저임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EITC(근로장려세제) 강화, 빈곤가구 소득지원 강화 등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p>② 최저임금을 높여도 기업이 여타비용 절감이나 품질경쟁력 강화로 수용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기업의 전체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비용을 절감하거나 가격으로 경쟁하는 대신 품질을 개선하여 매출,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함 <p>③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그리 큰 폭의 실업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임 ○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대체로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modes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은 고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또한 상당 수준의 고용효과를 야기하는 최저임금 상승폭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학술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The Economist, 2017) <p>④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적응 가능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료 인상 억제, 가맹사업 부당거래 규제 강화 등이 가능함(오상봉, 2017) ○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2018년 예산으로 3조원을 투입하여 임금 인상분 지원, 부가세감면,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기업주 의료비·교육비·식자재 세액공제율 인상,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수립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이데일리, 2017)
반대측	<p>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규제는 고용을 위축시키고 인적 자원 개발을 저해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노동의 공급을 늘려 고용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임 - 최저임금 인상 고용 축소 효과는 학문적, 실증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많은 주제이며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대체로

구분	내용
	<p>10대 고용이 1~3% 정도 하락한다고 함(Mankiw, 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응답자의 92.4%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따라 고용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응답자의 91%는 “그들 자신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함(중소기업뉴스, 2017) ○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증대 이외에도, 청소년 학업중단을 유발하기도 하며, 미숙련 근로자의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Mankiw, 2015) ② 최저임금의 적용 계층이 정책 의도와 달리 형성될 수 있어 매우 비효율적 빈곤정책수단이며,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의 1/3 이하만이 빈곤선 아래에 속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대부분은 용돈을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산층 가정의 10대 청소년들임(Mankiw, 2015) ○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에 계속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3.6%를 기록함(오상봉, 2017) ○ 저임금근로자와 빈곤층과의 일치도가 낮아 비효율적이며, 가구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윤희숙, 2016). ③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72.7%가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1년 이내 37.6%, 3년 이내 61.2%)(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17) - 폐업 위험 직면의 주된 이유는 소득부진과 영업이익률 하락 등임 -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68.2%가 고용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근무 대상이며,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중소기업뉴스,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감소 업체의 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감소’(36.3%). ‘인건비 상승’(23.7%) 등 - 2017년 상반기 월평균 순이익: ‘100~200만원 미만’(28.6%). ‘적자’(21.9%) - 고용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최대 애로사항: ‘높은 임금’(66.8%). ‘찾은 이직’(8.9%) ④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며 인상 방향에는 찬동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7,530원은 중간임금(근로자임금의 중위수)의 70% 수준이며 이는 다른 어떤 주요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The Economist, 2017)

2.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1) 프로그램의 실행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모듈 A, B, C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 9>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교 별로 11-2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므로 1팀을 5-6명으로 편성한 후 각 팀이 A, B, C 모듈에 함께 참여하였다. 모듈C에서는 팀별로 상의하여 3명의 학생이 팀의 대표로 토론에 참여하였고, 모든 팀이 찬반토론 1회에 참여한 후 승리한 팀들이 2회 토론에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중 사회자와 시간관리자를 선정하였고, 다른 학생들은 패널로 참여하여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자에게는 사회자 스크립트를 제공하여 원활하게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듈 B, C 모두 첫 번째 논제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수행하였고, 학생들에게 준비된 5편의 읽기자료와 팀 별로 추가 자료 탐색 시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을 제공하였다.

<표 9> 실행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모듈	모듈명	주요내용	시간 (분)	비고
A	오리엔 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프로그램 안내 토론의 특성(정의, 절차, 효과) 토론 과정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과정 동영상 활용
B	경제 토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인 1팀으로 구성 / 논제 제시 팀 내 부분팀(찬성, 반대) 구성 부분 팀에서 토론개요서 작성 부분 팀간 찬반토론 토론 내용을 토대로 팀 의견 결정 팀별 의견 발표 및 공유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형 찬반 토의 · 토론 읽기자료 제공 토론개요서 양식 제공
C	경제 토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자 선정(3인 1팀) 논제 제시 대진표 및 입장 결정(제비뽑기) 팀별 토론개요서 작성 찬반토론(1회) 찬반토론(2회) 정리 및 성찰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칼 포퍼형 토론(약식) 읽기자료 제공 추가 자료 조사 및 활용 가능

2)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의 평가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표 10>과 같다. 평가에 참여한 99명의 학생들 중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이상의 답변을 한 학생은 95명 (96.0%), ‘방법’에 대해 ‘만족한다’ 이상의 답변을 한 학생은 91명(91.9%)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0>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내용’에 대한 만족도	0 (0%)	0 (0%)	4 (4.0%)	33 (33.3%)	62 (62.6%)	4.59	0.57
‘방법’에 대한 만족도	0 (0%)	2 (2.0%)	6 (6.1%)	38 (38.4%)	53 (53.5%)	4.43	0.70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지식을 습득한 정도에 대한 인식은 <표 11>에 제시한 것처럼 92명(92.9%)이 ‘그렇다’ 이상의 답변을 하였다(M=4.58, SD=0.62).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평소 ‘경제’와 ‘토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지 않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답변과 비교하면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지식습득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프로그램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경제지식 습득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경제지식 습득	0 (0%)	0 (0%)	7 (7.1%)	27 (27.3%)	65 (65.7%)	4.58	0.62

3)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적 평가

학생들이 제시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강점을 토론경험, 교육성과, 교육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강점

구분	구분	답변 예시	N	%	N	%
토론경험	토론경험 및 학습	실전 토론을 경험한 것 같아 도움이 됨 토론 과정을 습득할 수 있음 전문적 토론시스템을 배우고 경험함	40	23.4		
	주도적 참여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줌 토론을 통해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음 직접 생각하고 부딪치면서 자율성을 키움	23	13.5	78	45.6
	다양한 사고와 표현	논제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음 자기 팀과 상대 팀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음 토론하며 양측 의견을 들을 수 있음	15	8.8		
교육성과	경제지식 습득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함 경제에 관심이 없는데 토론을 하면서 흥미가 생기고, 정보를 얻어서 좋았음 경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게 됨	39	22.8		
	사고능력 개발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었음 토론을 통해 대응능력과 사고력을 높임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12	7.0	64	37.4
	흥미와 재미	재미있고 유익했음 강의수업보다 더 즐겁고 기억에 남음 토론이 재미있었음	13	7.6		
교육운영	쉽게 참여 가능	기본자료가 도움이 됨 과정이 체계적이고 초심자도 하기 쉬웠음 어려운 '자료조사'에 대한 보조와 지원이 있음	18	10.5	29	17.0
	교육환경 만족	실제 토론 장소처럼 되어 있어서 좋았음 쾌적한 환경이 좋았음	11	6.4		
합계			171	100	171	100

* 중복응답, 99명의 학생들이 답변함

첫째, 토론경험 영역에서 학생들은 토론을 경험하고 학습한 것(23.4%),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13.5%), 토론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사고하고 표현한 것(8.8%)을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별로 없었던 학생들이 쉽지만 체계적으로 토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토론 활동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이다.

둘째, 학습성과 영역에서 학생들은 경제지식 습득(22.8%), 사고능력 개발(7.0%), 흥미와 재미(7.6%)를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경제토론 활동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학습성과가 도출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육운영 영역에서 학생들은 용이한 참여와(10.5%), 좋은 교육환경(6.4%)을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토론을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운영한 경제 토론 교육 프로그램이 토론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이라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쉽고 즐겁게 토론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경제 토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점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점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교육시간과 난이도와 교육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첫째, 교육시간과 난이도 영역에서 학생들은 교육시간 조정(51.7%)과 자료의 분량과 난이도 조정(14.6%)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론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소수 몇몇 학생들은 토론 프로그램이 지루하다고도 하였다.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제시한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다. 읽기자료 역시 내용이 많다는 의견과 더 다양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난이도별로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도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찬성과 반대 측의 자료량이 비슷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논제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료가 찬성 또는 반대 중 한 쪽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논제 선택과 자료 선정이 중요하다.

둘째, 교육운영 영역에서 학생들은 충분한 오리엔테이션(18.0%)과 보다 많은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운영방법 변경(15.7%)을 제안하였다. 토론 방법과 토론 예절 등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원하는 것은 토론을 보다 잘 하고 싶은 동기가 반영된 의미 있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운영방법 변경 역시 보다 많은 학생들과 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희망하는 제안이어서 이 역시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3>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개선할 점

		답변 예시	N	%	N	%
교육 시간과 난이도	교육시간 조정	자료조사를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음 조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확대 토론 프로그램이 길어서 지루했음	46	51.7	59	66.3
	분량과 난이도 조정	자료의 내용이 너무 많음 더 다양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음 찬성과 반대 측의 자료량이 비슷해야 함	13	14.6		
교육 운영	오리엔 테이션	토론방법과 유의할 점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해야 함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므로 토론방식을 잘 소개해주시면 좋겠음 토론 예절 등에 대한 안내와 강조	16	18.0	30	33.7
	운영방법 변경	토너먼트 보다는 교차토론 원함 진 팀도 계속 토론하게 해 주기를 바람 결승 토론은 다른 주제로 제시하도록 함	14	15.7		
합계			89	100	89	100

* 중복응답, 99명의 학생들이 답변함(무응답자도 있음)

4)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학생들이 제시한 평가 의견을 종합하면, 학생들은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토론활동을 경험하고, 경제지식, 사고능력개발, 경제와 토론에의 흥미와 관심이라는 학습성과를 산출하고, 쉽고 즐겁게 토론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보다 의미 있는 토의 활동을 위해 토론활동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과 시간 확보, 필요와 수준에 부합한 자료 및 지원 환경 제공, 충분한 참여 기회를 희망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논제와 수준별 읽기자료, 그리고 수준별 토론활동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읽기자료를 제공할 때 태블릿, 노트북 등 자료 검색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토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빈번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V. 논의 및 결론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제교육은 경제학 전공자에 대한 교육, 개인의 경제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경제지식의 교육, 민주시민으로서 경제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금융문해능력 개발 등을 위해 경제지식을 교육하고 미래 시민으로서 경제적 소양을 함양하는 조기 경제교육이 절실하다. 한편 세계적 교육 혁신의 흐름은 학생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는 등 학생 주도의 능동학습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 대상의 경제교육에 능동적 학습을 위한 토론 방법을 적용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토론 유형 중에서 고교 또는 대학의 수업에서 교육목적으로 채택하기에 적합한 칼 포퍼형 토론방법을 기본 요소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토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협동형 토론, 약식의 칼 포퍼형, 정식의 칼 포퍼형 등 4개의 모듈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듈을 조합하여 5개 수준의 토론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KDI 지식협력단지에서 고교생 대상으로 시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단계 중 2단계 수준 정도로서 오리엔테이션, 협동형 토론, 그리고 약식의 칼 포퍼형을 조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선택에 더하여 최저임금 등의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 개요, 토론 모듈, 논제 및 읽기자료 등을 포함한 토론 가이드라인과 워크북을 제공하였다.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사전 관심도, 프로그램 만족도와 경제지식 습득 정도에 관해서는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강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형성적 의견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평소 ‘경제’교과목이나 ‘토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이 없던 평범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지식 습득의 인식 정도에 높은 수준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적 평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토론의 경험과 교육의 성과, 교육의 운영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강점을 제시하였다. 전문적 토론시스템을 경험하였다든지,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든지, 평소 무관심했던 경제 문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든지, 장소와 시설이 토론에 적합했다는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개선점에 관해서도 교육시간이나 분량, 난이도의 조정, 오리엔테이션의

보강, 참여기회를 넓히는 운영방식 개선 등 적절한 제안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 대상의 경제교육에 관한 토론수업 적용의 잠재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선 능동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으로서 토론이 유용하고 교육성과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의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토론을 지도하는 교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적절한 논제의 선정, 내실 있는 오리엔테이션, 적절한 시간·학습분량·난이도, 자료검색과 토론 진행을 위한 양호한 자료·기자재·시설 환경 등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생애주기 단계 및 사전 지식수준 별로 다양한 교육대상에 특화하는 구체적 토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구정호·양지연(2017), 프로젝트 중심 학습(PBL)에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회계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Korea Business Review*, 21(4), 119-140.
- 구정화(2009), 학교 토론 수업의 이해와 실천, 2009, 교육과학사.
- 기획재정부(2019),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평생 경제교육 확대, 보도자료(12.27).
- 김준태(2014), 교양 경제교육 효과향상을 위한 문제기반학습 방안, *교양교육연구*, 8(6), 675-726.
- 남정민(2017),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의 효과성 검증: 플립러닝 및 PBL 기반 기업가정신교육 적용 사례. *벤처창업연구*, 12(2), 31-40.
- 박삼열(2012), 토론식 수업에서의 교수자 전략.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1-125.
- 성경희·박은아(2017), PISA 금융소양 평가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사회과교육*, 56(1), 1-19.
- 신현범·김효정(2011), 주식모의투자의 투자심리 효과와 경제교육 효과, *경제교육연구*, 18(2), 129-151.
- 이광호(2019),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문제중심학습(PBL) 적용 활성화 방안, *상업교육연구*, 33(4), 1-23.
- 이두원(2008), 논쟁-입장과 시각의 설득, 2008,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상철·백미숙·정현숙(2006), 스피치와 토론, 200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장경원·이병량(2018), 토의와 토론으로 수업하기, 2006, 학지사.
- 정문성(2017), 토의토론수업방법84, 2017, 교육과학사.
- 정영선(2016), 금융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시민교육연구*, 48(3), 185-210.
- 최성호·장경원(2017a), 프로젝트학습과 오픈스페이스기법을 활용한 교양 경제교육 사례연구, *경제교육연구*, 24(3), 155-186.
- _____ (2017b), 한국경제관련 토론형 PBL 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가이드북, KDI.
- 케빈 리(2012), 디베이트 심화편, 2012, 한겨레에듀.
- 하재홍(2010), 토론식 교수법의 설계와 평가, *경기법학논총*, 9, 211-248.

- 한진수(2019), 금융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2019년 한국금융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3-40.
- 한국개발연구원(KDI)(2019), 주요 선진국의 경제교육 동향과 시사점, KDI.
- 현남숙(2014), 창의적 문제해결과 발표-토론 연계 교육: 사회적 갈등 논제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5), 237-261.
- Anderson, J. (2016), Teaching Debate in Japanese Universities. *The Kwassui Review*, 59, 73-88.
- Bartanen, M. D. and Frank, D. A. (1994), *Nonpolicy Debate*, Prentice Hall.
- Becker, W. E. (2001), Economic Education, In Smelser, N. J., and Baltes, P. 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11, 4078-4084.
- Bligh, D. (2000), Lecture, Jossey-Bass Publishers.
- Bonwell, C. C. and J. A. Eison(1991), Active Learning: Creating Excitement in the Classroom,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No. 1*,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Buckles, S. (1987), What Is—and Isn't—Economic Education, *Theory Into Practice*, 26(3), 163-169.
- Chikeleze, M., Johnson, I., and Gibson, T. (2018), Let's Argue: Using Debate to Teach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o Future Leaders, *Journal of Leadership Education*, 17(2), 123-237.
- Christoph, J. N. and Nystrand, M. (2001), Taking Risks, Negotiating Relationships:" One Teacher's Transition toward a Dialogic Classroom,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36(2), 249-286.
- Cirlin, A. (2007), Academic Debate v. Advocacy in the Real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ublic Debate Association*, 1(1), 3-18.
- Edward, Richard E. (2008), *Competitive Debate-The Official Guide*, Alpha Books.
- European Commission (2020), About Innovation in Education: Improving and Modernising Education Is a Key priority for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https://ec.europa.eu/education/policies/innovation-in-education/about-innovation-in-education_en, 인터넷 자료(7.12, 접속).
- Financial Times (2019), Improving Financial Education, Article(12.6.).
- Goffe, W. L. and Kauper, D. (2014), A Survey of Principles Instructors: Why Lecture

- Prevail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5(4), 360-375.
- Hansen, W. L. (1983), Improving Classroom Discussion in Economics Cours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4(1), 40-49.
- Harmon, O. R. and Lambrinos, J. (2012), Active-learning Exercises for Principles of Economics Cours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3(2), 221-221.
- Hess, D. E. (2009), *Controversy in the Classroom: The Democratic Power of Discussion*, Routledge.
-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IDEA] (2020), Debate Formats, Homepage of the IDEA, <http://idebate.org/debate-formats>, 인터넷 자료 (7.12. 접속).
- Jones, M. D. and Baltzersen, M. (2017), Using Twitter for Economics Business Case Discussions in Large Lecture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Education*, 27, 14-18.
- Larmer, J., Mergendoller, J., and Boss, S. (2015), *Setting the Standard for Project-Based Learning*, ASCD.
- Luccasen, R. A. and Thomas, M. K. (2010), Simpsonomics: Teaching Economics Using Episodes of the Simpson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1(2), 136-149.
- Lynch, T. (1996), Basing Discussion Classes on Learners Questions: An Experiment in (Non)Course Design, *Edinburgh Working Papers in Applied Linguistics*, 7, 72-84.
- Malek, N., Hall, J. C., and Hodges, C. (2014),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Teaching Methods on Student Learning in Economics, *Perspectives on Economic Education Research*, 9(1), 75-85.
- Manin, B. (2005), Democratic Deliberation: Why We Should Promote Debate Rather than Discussion, In Paper Delivered at the Program in Ethics and Public Affairs Seminar, Vol. 13, Princeton University.
- McKeachie, W. J. (1972), Research on College Teaching, *Educational Perspectives*, 11(2), 3-10.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about/documents/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about/documents/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 인터넷자료(7.1. 접속).
- OECD (2020), PISA 2018 Results (Volume IV): Are Students Smart about Money?,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8ebd1ba-en>, 인터넷 자료

(8. 16. 접속).

- Parker, W. C. (2003), *Teaching Democracy: Unity and Diversity in Public Life*, Teachers College Press.
- Perelman, C. (1982), *The Realm of Rhetoric*,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Prince, M. (2004), Does Active Learning Work?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93(3), 223-231.
- Provencher, A. J. and Ramnarain, S. (2019), Class Debates i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Social Economics and Pluralist Perspectives, *Forum for Social Economics*, 48(4), 354-372.
- Roach, T. (2014), Student Perceptions toward Flipped Learning: New Methods to Increase Interaction and Active Learning in Economic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Education*, 17, 74-84.
- Stigler, G. J. (1970), The Case, if any, for Economic Literacy,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2), 77-85.
- Trapp, R., Driscoll, W., and Zompetti, J. (2005), *Discovering the World through Debate: A Practical Guide to Educational Debate for Debaters, Coaches and Judges*. IDEA.
- Vincent-Lancrin, S., et al. (2019), *Measuring Innovation in Education 2019: What Has Changed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11671-en>.
- Watts, M., and Becker, W. E. (2008), A Little More than Chalk and Talk: Results from a Third National Survey of Teaching Methods in Undergraduate Economics Cours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9(3), 273-286.
- Watts, M., and Schaur, G. (2011), Teaching and Assessment Methods in Undergraduate Economics: A Fourth National Quinquennial Survey,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2(3), 294-309.
- Woods, D. R., Felder, R. M., Rugarcia, A., and Stice, J. E. (2000), The Future of Engineering Education III. Developing Critical Skills, *Change*, 4, 48-52.
- Woolever, R. M., and Scott, K. P. (1988),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Promoting Cognitive and Social Growth*, Scott Foresman & Company.
- Wyk, M. M. V. (2011), The Use of Cartoons as a Teaching Tool to Enhance Student Learning in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s*, 26(2), 117-130.

<Abstract>

A Case Study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ebate Programs for Economic Education

Sung-Ho Choi* · Kyungwon Chang**

This study developed a case of debate programs for economic education that applied a debate method for active learning in economics for youths. Among the various types, the Karl Popper-style debate method, which is assessed to be the most suitable for educational purposes in high school or college classes, was adopted. As the pilot case for high school students, a debate program was implemented, combining an orientation, a collaborative discussion, and a simplified Karl Popper format debate. The results of the surve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showed that the debate activity gave ordinary students who had no special interests or knowledge in the “Economy” subject or “Debates” a high degree of program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economic knowledge. Students also actively provided their formative feedbacks about the program. They appropriately pointed out the strengths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experience of discussions, the outcomes of education, and the way the education operates. Also,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program, reasonable suggestions were made, such as adjusting class time, amount and difficulty of learning contents reinforcing orientation, and improving the operation method to exp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debate method on economic education for adolescents and looked for ways to develop it.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the debate method could be effective in improving educational performance and enhancing student satisfaction.

Key words: Debate and discussion, Debate program, Economic debate, Economic education

원고접수: 2020년 07월 15일 심사일: 2020년 07월 27일 ~ 2020년 08월 17일
게재확정: 2020년 08월 17일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finechoi@kyonggi.ac.kr).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kyungwon@kyonggi.ac.kr).